우상혁, 전국체전 개인 통산 8번째 금메달

높이뛰기 2m32로 우승
한국신기록 도전은 실패
"올림픽 준비 경험 잘 쌓아"

18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높이뛰기 남자 일반부 결선에서 우상혁(용인시청)이 2m32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이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개인 통산 8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우상혁은 18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2를 넘어 우승했다.

2위는 2m15를 넘은 박순호(영주시청)였다.

우상혁은 충남고에 다니던 2013년과 2014년, 실업 입단 후인 2015, 2016, 2018, 2019, 2022년 대회에 이어 개인 통산 8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아울러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4연패를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았고, 2021년에는 고등부 경기만 열렸다.

올해 1월 서천군청을 떠나 용인시청에 입단한 우상혁은 경기도 대표로 첫 전국체전 우승을 이뤘다.

우상혁은 2m15에서 경쟁을 시작했다.

2m15를 1차 시기에서 넘고 담담한 표정을 짓던 우상혁은 2m21을 역시 1차 시기에 넘고는 손뼉을 치며 짧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박순호가 2m21을 뛰지 못해 여기서 우상혁의 우승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 신기록(2m37)을 향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우상혁은 박수를 유도하며 관중들을 외로운 싸움의 우군으로 삼았다.

2m27을 1차 시기에서 넘지 못한 우상혁은 곧바로 2m32에 도전, 깔끔하게 넘어버리고 방방 뛰며 포효했다.

하지만 이어 도전한 2m37은 넘지 못했다.

1차 시기에서는 발이 바에 걸렸고, 2차 시기에서는 점프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는지 높이가 많이 부족했다.

우상혁은 도전을 멈췄고, 우승 기록은 2m32로 남았다.

이로써 우상혁은 2023시즌을 마무리했다.

우상혁은 2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아시아실내선수권대회에서 2m24의 기록으로 2위에 오르며 시즌을 시작했다.

5월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WA)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m27을 넘었다. 2m32를 뛴 주본 해리슨(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같은 달 경북 예천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2m16으로 1위를 확정한 뒤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기준 기록인 2m32에 도전, 1차 시기만에 성공했다.

우상혁의 점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다가올수록 힘을 받았다.

6월2일 이탈리아 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m30으로 준우승한 우상혁은 같은 달 25일 강원 정선에서 열린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2m33을 넘으며 바를 더욱 높였다.

8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m29로 6위에 그쳤으나, 9월 취리히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m31로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티켓을 따냈다.

9월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는 2m35를 3차 시기에 성공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역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뤄낸 역사적인 우승이었다.

쉴 새 없이 날아오른 우상혁은 이달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라이벌이자 친구'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과 접전을 펼친 끝에 2회 연속 은메달을 따냈다.

우상혁은 2m33을 넘었고, 바르심은 그보다 2㎝ 높은 2m35를 기록하며 세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목포의 국내 팬들 앞에서 화려하게 도약하며 한 시즌을 마친 우상혁은 벌써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한다.

우상혁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을 차지할 때, 파리 올림픽 기준 기록(2m33)을 통과하며 본선 진출권을 사실상 확보했다.

우상혁은 경기 뒤 "연습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한데, 그걸 파리 올림픽 전 해에 매우 잘 쌓은 것 같다. 기분 좋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궁 광주여대 안산 아쉬운 은메달 … 임시현 우승

컴파운드 남자 김종호 금메달

1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여자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안산(광주여대)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제104회 전남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안산(광주여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임시현은 1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양궁 여자 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안산에 6-2(28-29 29-27 26-25 28-24)로 승리했다.

이로써 임시현은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다. 서울체고 시절 출전한 제102회 대회 단체전에 이은 개인 통산 2번째 전국체전 금메달이기도 하다.

특히 임시현은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을 상대로 개인전 결승 2연승을 거두며 명실상부 한국 여자양궁 '에이스'임을 증명했다.

임시현은 이달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안산을 개인전 결승에서 물리치고 3관왕에 등극한 바 있다.

광주가 고향인 안산은 홈에서 대표팀 후배에게 다시 한번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컴파운드 양궁 남자 일반부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김종호(현대제철)가 박승현(한국체대)을 146-144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김종호는 2015년, 2016년, 2022년 대회에 이어 통산 4번째로 전국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종호와 함께 이 종목 강자로 오래 활약해온 최용희(현대제철)는 3위를 했다.

컴파운드 양궁 여자 일반부에서는 한승연(한국체대)이 결승에서 심수인(창원시청)을 144-14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건 소채원이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수영 황선우, 3년 연속 4관왕 '금물살'

자유형 100m 우승 MVP '바짝'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가 전국체전 3년 연속 4관왕을 확보하며 역대 최초 3년 연속 최우수선수상(MVP) 수상에 바짝 다가섰다.

황선우는 18일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에서 48초48의 기록으로 김진원(대구시청·49초11), 김민준(강원도청·49초14)을 제치고 대회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50m 구간을 김진원(23초20)에 이어 2위(23초39)로 통과했으나 강한 뒷심을 발휘해 역전 우승을 일궜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세웠던 자신의 한국 기록(47초56)엔 다소 못 미쳤다.

황선우는 15일 계영 800m, 16일 자유형 200m, 17일 계영 400m에 이어 4일 연속 '금빛 역영'을 펼쳤다.

그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혼계영 400m에서 5관왕에 도전한다.

황선우는 2021년 대회 5관왕, 2022년 4관왕에 오르며 2년 연속 대회 MVP로 뽑혔다.

그가 이번에도 MVP를 거머쥐면 사상 최초 3년 연속 MVP 수상 기록을 쓴다.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 MVP를 뽑은 건 1980년 제61회 대회 때부터이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년 연속 MVP를 받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팀 김우민도 이번 대회에서 4관왕에 올랐으나 19일 열리는 혼계영 400m에 출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황선우의 MVP 수상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연합뉴스

오상욱,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단체전 석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이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했다.

오상욱은 18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펜싱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전에 박상원, 홍동열(이상 대전시청), 김재원(대전대)과 함께 대전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이끌었다.

앞서 13일 개인전에서 국가대표팀 선배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결승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우승했던 오상욱은 이번 전국체전 2관왕에 올랐다.

오상욱은 지난달 아시안게임에서 구본길을 결승에서 꺾고 처음으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고 단체전에선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와 우승을 합작했다.

이어 국내 무대에서도 2관왕 등극으로 '1인자'의 입지를 단단히 했다.

이날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선 오상욱을 앞세운 대전 선발팀과 김준호 등이 포함된 경기 선발팀이 맞붙어 대전이 45-42로 이겼다.

남자 일반부 플뢰레 단체전에서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멤버 임철우(성북구청) 등이 출전한 서울 선발팀이, 에페 단체전에선 박상영 등이 나선 울산 대표 울산시청이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에선 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 멤버인 이혜인 등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아시안게임 2관왕 최인정을 앞세운 충남 대표 계룡시청을 45-23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가져갔다. /연합뉴스